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 개요】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 30 명이 10 월 10 일~18 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방한하였습니다. 방한단은 서울 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각종 시찰, 대학 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와의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 참가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매력과 프로그램 중의 배움 등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일본의 대학생 등 30 명

【방문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9 월 20 일 (토) 한국 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특강 청강, 한국대학생 방일단 참가자들과의 교류

■ 파견 (오프라인) :

10 월 10 일 (금)	김포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시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찰】 창경궁
10 월 11 일 (토)	【교류】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필드워크
10 월 12 일 (일)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 참가
10 월 13 일 (월)	【예방】 한국 외교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시찰】 북촌한옥마을, 청와대사랑채, 국립민속박물관
10 월 14 일 (화)	【대학방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아시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는 고령사회의 여러 문제”【교류】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캠퍼스투어 및 K-pop 댄스 , 【시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건축투어, 【교류】 흄스테이
10 월 15 일 (수)	흄스테이에서 집합, 부산광역시로 이동
10 월 16 일 (목)	故 이수현 씨 묘 묘 참배, 가족과의 대화, 감천문화마을, 조선통신사역사관
10 월 17 일 (금)	【시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해동용궁사, ASEAN 문화원, 성과보고회
10 월 18 일 (토)	김해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10 월 10 일 【시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 월 11 일 【교류】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필드워크
	
10 월 12 일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 참가	10 월 13 일 【예방】 한국 외교부
	
10 월 14 일 【대학방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10 월 15 일 【교류】 흄스테이
	
10 월 16 일 故 이수현 씨 묘 참배	10 월 17 일 【시찰】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3. 참가자의 감상 (발췌)

◆ 일본 대학생

한국 외교부와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고위급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공통의 과제에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느꼈다.

◆ 일본 대학생

현지 학생 및 시민과 직접 교류하며 ‘다름을 넘어 연결되는 것’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한일 교류 축제나 필드워크에서는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미소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고,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교류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 일본 대학생

방한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이수현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그의 행동은 국적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용기와 따뜻함을 보여준다.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국가’라는 틀에 얹매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언론에서는 ‘일한 관계’의 정치적 대립이 자주 언급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이수현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양국 관계를 논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 대학생

외교부에서 들은 일한 공통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국가 간 관계의 복잡함을 느끼는 동시에, 서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깊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역사적 문제나 감정적 골은 쉽게 메워질 수 없지만, 문화·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지속되는 한 상호 이해는 조금씩이라도 확실히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한국측 감상 (발췌)

◆ 한국 측 기관 담당자

올해 일본 대학생 방한 초청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과거와 현대의 양국 관계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면서 조선통신사 역사의 현장인 동시에 故이수현씨의 고향인 부산에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동 거리가 많아 다소 피곤한 상태임에도 모든 일정에 웃는 얼굴로 열심히 참여해 준 일본 학생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기관의 강연 및 면담 이후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이러한 청년 교류 사업을 통해 희망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 한국 측 교류상대 대학생

교류 날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 대학생 친구들과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한국 측 교류상대 대학생

한국과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입니다.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맞이할 이웃나라인 것이죠. 이번 방한단과의 교류는 아픈 역사를 되짚으면서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한국대표단과 일본대표단들은 각자의 지역의 특색과 관광지에 대해 말하며 나중에 꼭 각자의 고향에서 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 (발췌), 보도기사 등

		
<p>大韓民国歴史博物館の展示</p> <p>オリエンテーションを済ませた後は、大韓民国歴史博物館を訪問しました。展示を見るなかで、日本と韓国の歴史を始めた頃を感じながらも、簡単ではない歴史問題の色濃さを強く意識しました。韓国では近代化や独立運動の歴史が特に詳しく述べられており、そこには日本との関わりも多く登場します。ガイドの方の説明を聞きながら、「同じ歴史を見てても、国によって受け止め方が違う」という当たり前の事実を実感しました。歴史認識の違いを知ることは、「対立」ではなく「理解」への第一歩になるのだと思います。</p>	<p>2025년 10월 10일 (note)</p> <p>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를 보며 일본과 한국의 시대를 초월한 연결고리를 느끼면서도, 쉽지 않은 역사 문제의 무게를 강하게 의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특히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그 곳에는 일본과의 관계도 많이 등장합니다.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으며, ‘같은 역사를 봐도 나라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아는 것은 ‘대립’이 아닌 ‘이해’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025년 10월 12일 (Instagram)</p> <p>한일교류축제 부스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벤트에서 일한 양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 각 문화의 차이를 깨닫는 동시에, 양국이 지금까지 이러한 문화를 끊임없이 계승해 온 것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 분들이 부스에서 일본 문화 체험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풀뿌리 차원의 이문화 교류가 앞으로의 우호적인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어를 익혀 한국 분들과 더 깊은 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p>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p>개인으로서 마주하는 자세와 선입견을 버린 대화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앞으로의 학생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겠다고 느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교류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많은 참가자 및 협력자와 직접 교류하며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교류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 대학교에서의 교류에서는 대학생이라는 입장에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 질문하며 양국의 생활과 사고방식, 학습 태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단순한 관광 여행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사고방식의 리얼 함’을 느낄 수 있었고, 참가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홍보과를 통해 방한단에서의 체험을 기사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실제 참가하여 배운 교류의 가치와 깨달음, 그리고 활동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기사를 읽음으로써 국제 교류나 방한단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이와 같은 귀중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늘린다. 교내에 새로운 동아리를 설립해 누구나 부담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글 학습뿐만 아니라 회화 연습과 실제 교류회도 진행하며, 한국 지인들과 연계한 교류 기회도 마련할 것이다. 	<p>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그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나 영토 등의 문제는 있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는 미래 지향적이며, 앞으로의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과제는 많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일한 우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한국에는 한옥 카페 등이 많아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그런 자세를 존경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일본의 좋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한단 체험은 한국 체류 중에도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했고, 이는 방한단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note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방한단에서의 체험을 글로 정리해 더 상세히 기록하고, 그 의의를 전하고 싶다. 대학 4학년동안 TOPIK 4급 취득을 목표로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에 힘쓰고 싶다.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손님도 많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응대하고 싶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 ‘전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응대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